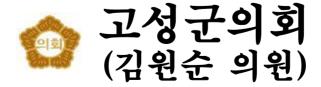
민들과 살아수는 고생글이한

2024. 9. 12.(목) 10:00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고성군 농어촌버스 전면무료화 정책 제안-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읍, 대가면 지역구
김원순 의원입니다.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익어가는 계절,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고성군 농어촌버스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2025년 1월1일부터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을 파격적으로 제안합니다.

우리군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문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지역사회 고령화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전국 고령인구비율은 19.2%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우리 군은 고령인구비율이 무려 38%나 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을 보면 전국 평균 66%지만, 고성군은 80%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교통비를 부담해가며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운행시간이 열악하여 이용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수도권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경제여건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료로 전철 및 지하철을 이용하여 여가를 즐기고 병원 진료를 받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북 청송, 봉화군을 비롯하여

충북 진천, 전남 완도, 진도 등에서 농어촌버스 전면 무료화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남연구원에서 연구한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 도입에 따른 고령자의 통행행태 분석 결과

버스요금 무료화 정책 도입시 어르신들의 외출 횟수는 평일 13.8%, 토요일 21.1%, 일요일 25%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전 군민 버스 무료화 정책을 시행 중인 청송군의 6개월간 시행성과를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하루평균 버스 이용객수가 25% 증가하였으며, 지역 경제효과는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지원한 비용의 10배 이상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인구의 증가, 사람들과의

유대감 증가, 사회적 연결망 강화 등 경제적 가치로 추산할 수 없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대중교통 정책을 심도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농어촌 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은 앞선 연구결과에서 말해주듯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 보편적 교통복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고성군의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성군에서 획기적인 농어촌 버스 무료화 정책을 도입한다면,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살기 좋은 지역, 군민 친환경적인 고성'등의 이미지로 각인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브랜드가치 상승을 통한,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에도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난 29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말은 우리군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은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 2023년 우리군에서 고성버스에 보조하고 있는 예산은 매년 약 25억원 정도 되며, 2024년 고성버스 연간 운송수입금은 약 5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즉,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예산에서 5억원 가량 추가 지원한다면, 전면 무료화가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농어촌버스 무료화 정책은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 우리 고성군의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농어촌 버스를 활성화 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명품 고성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무료화 정책은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이며 과감히 결단하여 시행되여야 합니다.

군민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논의와 정책 도입을 촉구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약속드리며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